

韓 출마설에 커지는 ‘빅텐트론’... 국힘, 단일화 기류 확산

(특수)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후 원석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의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이어 홍준표·한동훈 입장 선회... ‘반 이재명’ 전선 안철수, 필요성엔 공감...한 대행, 다음주 사퇴 결단 전망

국민의힘 안팎에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있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여권별 빅텐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홍 후보는 24일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反)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 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앞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다”며 단일화 질문 자체에 불쾌감까지 드러냈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과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협력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한 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 나와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도 “일종의 빅텐트를 만들어서 (한 대행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출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반 이재명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의 기류가 한 대행과의 단일화로 급격히 쏠리게 된 것은 ‘당원 투표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과 무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행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선불리 단일화에 선을 그을 경우 4명 중 2명을 뽑는 2차 경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이 다음 주 사퇴해 출마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겐 진영을 넘어서는 슈퍼 빅텐트가 절실하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슈퍼 빅텐트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뚜렷하게 대세론을 형성한 주자 없이 후보들 간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도 당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홍 후보의 입장 선회는 김 후보가 한 대행 지지율까지 흡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입장에 진정성이나 현실성이 없다고 깎아내리면서, 단일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김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후보 캠프의 김재원 공보미디어총괄본부장은 MBC 라디오에서 “홍 후보의 빅텐트는 결국 1인용 빅텐트이고, 한 후보는 아예 정치력이 없는 분”이라며 “유일하게 김 후보는 자신이 당 경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한 대행과 단일화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둑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달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나주 한전공대서 기초과학 집중 육성”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민주당 김경수

군공항이전, 메가시티 차원 추진 특별법 통해 법적 행정수도 이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4일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론에 대한 비전과 지역 공약 등을 공개했다.

또 광주 AI 육성 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대에서 AI학과, 수학, 기초과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김경수 지사와의 일문일답.

-전국 공항 문제가 현안이다. 현안 해법은.

▲전국에 걸쳐 현안이 되고 있는 공항 문제도 5대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 메가시티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공항을 확대하거나 신규 계획 중인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이 없어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전국에 70여개가 넘는 공항을 두고, 일본 관광산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대선 도전 각오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대외적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는 위기에 강하고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필요하다. 청와대와 국회, 지방행정까지 세 가지 국정 분야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 빛의 연대와 연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통합적이고 겸손한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 자부한다.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해법은.

▲지난 70년 동안 진행된 수도권 일극체제의 효율성이 막을 내리는 중이다. 청년 집중, 부동산 가격, 삶의 질, 저출생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이제 지방이 함께 국가 경쟁력의 동력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현재처럼 17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경쟁해서는 지방이 수도권에 이길 수 없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단체로는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자율적인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 원칙도 확립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행정수도 이전은 여러 가지 경로를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다. 우선 특별법을 통해 법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대선 이후 적절한 시기,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개헌안에도 수도 조항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투트랙 전략이다. 광주에 인공지능(AI) 국가데이터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남대나 한국에너지공대에서 AI학과, 수학, 기초과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거다. 우수 교수진을 모셔오고 학비, 생활비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면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기업도 지방으로 찾아온다.

-경선 승리 전략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제가 서로 다른 색깔로 자기만의 정책을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오히려 경선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확대해 나가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라는 유의미한 과정을 밟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높은 지지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



는 내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안전한 내란 종식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 사회대개혁, 그리고 개헌이다.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 정권교체 후 신속히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할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다만, 개헌은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결별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견해는.

▲우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별로 자체적인 비전과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각 메가시티의 특성화된 발전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정부 초기에 5대 권역 메가시티 추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이재명, 차기 대통령 적합도 41%

NBS 조사 첫 40%대 돌파

차기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항목이 생긴 올해 1월 이래 이 후보 적합도 응답이 4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올랐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각각 10%, 한동훈 후보 8%,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 등이었다.

지난주에도 동물이었던 홍·김 후보에 대한 적합도 응답은 나란히 2%씩 올라 이번주에도 동물을

기뻐했다. 한 후보에 대한 적합도 응답 역시 2%p 상승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질문한 결과, 이 후보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3%, 홍·김 후보 25%, 한 후보 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6% 등이었다.

이번 대선에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3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가정한 조사에선 ▲이재명(46%)·김문수(25%)·이준석(9%) 후보 ▲이재명(45%)·홍준표(26%)·이준석(7%) 후보 ▲이재명(45%)·한동훈(21%)·이준석(8%) 후보 ▲이재명(46%)·안철수(17%)·이준석(7%) 후보로 각각 나타났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